

총파업, 압도적 가결로!

7월 8일(월) ~ 10일(수) 쟁의행위 찬반투표

임단투! 노동법 개악! 다 잡는다!

금속노조가 7월 8일(월) 부터 10일(수)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합니다. 지부도 6월 27일 8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7월 5일 조정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정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15일부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갖게 됩니다.

2019년 임단투와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교섭, 지부교섭을 비롯해, 각 사업장 임단협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악은 국회에서 다시 불붙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9년 투쟁승리를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가결로 우리의 투쟁의지를 보여줍시다!

일진다이아몬드 투쟁도 끝장낸다!

신규지회인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6월 2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진자본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지부와 지회는 일진그룹 본사, 계열사를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일진자본이 계속해서 노조파괴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부 총파업의 타겟은 일진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지부 전체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확인하고, 일진다이아몬드 투쟁을 끝장내기 위한 지부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7월 11일 확대간부 결의대회, 18일 지부 총파업을 통해 일진자본을 압박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더이상 노조파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줄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노조파괴 중단! 일진자본 규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결의대회
및 충북지역 연대문화제**

일시 : 2019년 7월 11일(목) 17시

장소 : 일진다이아몬드 사내

※ 7/18(목) 14시 지부 총파업도 일진다이아몬드!